지역 소식통

정읍시, 도민체전서 일반부 5위 · 학생부 2위 쾌거

정읍시 선수단이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서 일반부 5위, 학생부 2위를 차지하며 상위권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고창군 일원에서 열렸으며, 정읍시는 38종목에 걸쳐 797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정읍시는 개회식 첫날 '정읍보물369'를 주제로 꾸민 선수단 행렬로 주목을 받았다. 쌍화차 조형물과 정읍막걸리, 구절초우산 퍼레이스를 선보이며 당당히 입장상 2위를 수상했고, 이를 통해 정읍보물369를 널리 알리는 성과도 거뒀다.

경기 성적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냈다. 일반부에서는 단체줄넘기와 볼링에서 1위를 차지했고 씨름, 제기차기, 투호가 2위, 축구와 풋살, 파크골프, 사격이 3위를 기록 종합 5위에 올랐다. 학생부는 복싱과 육상에서 2위, 배구 · 배드민턴 · 수영 · 주짓수에서 3위를 기록, 종합 2위를 달성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 매입 재공고

부안군은 지난 12일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게시했으며, 이번 공고는 지난 공고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재공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군은 기존주택 매입 후 청년임대주택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세입자 이주 및 공실 확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3월 말까지 공실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실 확보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리모델링 및 청년 임대주택 공급 일정 단축, 청년층의 저렴한 임대료 입주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등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선정된 주택은 매입 절차를 마친 뒤 청년 맞춤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추석 명절 지역경제 회복 등 '총력전'

고창군, 무료 셔틀버스 확대 · 온누리상품권 환급 · 농민수당 추석 전 지급 등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위축된 민생경제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편리하고 알뜰하게 명절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와 소비 촉진을 동시에 지원한다.

먼저, 기존 장날(매월 3 · 8일)에만 운영하던 고창전통시장 셔틀버스를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확대 운행한다. 이를 통해 군민과 귀성객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접근성을 크게 높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고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추석 전까지 군민활력지원금과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군민활력지원금은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군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10%를 제외한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씩 제공된다. 두 지원금 모두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해 명절 장보기 비용 절감과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고창군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민수당도 추석 전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군민활력지원금, 소비쿠폰, 농민수당이 모두 추석 전에 지급됨에 따라 농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통시장 행사와 군민 지원금이 어우러져 이번 추석이 군민 모두에게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 위한 특별한 공간 마련

부안군, 지정기부사업 제2호 비호텔 줄포만 노을빛 정원 설치… 안내판에 기부자 이름 새겨

부안군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다.

군은 2025년 지정기부사업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의 일환으로 줄포만 노을빛 정원에 설치될 제2호 비호텔(Bee Hotel)에 기부자 이름이 새겨진 안내판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비호텔은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벌을 위한 인공 서식지다.

군은 이를 단순한 환경시설이 아닌 생태복원과 시민참여가 결합된 상징적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제1호 비호텔은 국립새만금박물관에 설치돼 야생벌 입주가 확인되면서 실질적인 기능도 입증됐다.

이번 제2호 비호텔에는 처음으로 '분양지' 개념이 도입된다.

오는 30일까지 지정기부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부 금액과 상관없이 안내판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자신이 기여한 공간에 이름을 남기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전망이다.

또 군은 오는 10월 말 비호텔 설치 기념식과 함께 기부자를 초청해 1박 2일 체험 행사와 분양증서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부자가 직접 조성된 공간을 경험하며 자신이 응원한 사업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군 관계자는 "기부자의 이름이 담긴 안내판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참여의 흔적이자 자부심이 될 것"이라며 "기부가 만들어낸 공간을 통해 고향사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타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은 전북 최초로 지정기부제를 운영 중이며 기부자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점검

파크골프장 · 억새풀 산책로 · 생태습지 등 휴식공간 조성 계획

이학수 정읍시장이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쳤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동진강 일원을 둘러보며 파크골프장, 산책로, 생태습지, 체육시설 등 다양한 조성 계획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시했다.

먼저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예정지에서는 매표소와 주차장을 이용객 동선에 맞게 배치하고 억새풀 산책로와 시민 휴식공간을 함께 조성해 복합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만석보 쉼터에서는 생태습지와 억새풀 산책로를 검토하고 주차장은 추가 매입 없이 기존 부지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기반 조성이 끝난 이평쉼터는 면적을 세밀히 검토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즉시 추진하고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다. 낙양보 제방의 경우 하천정비 공사로 농사가 금지될 예정인 만큼 사전 예고를 철저히 해 민원 발생을 막도록 했다. 아울러 리틀야구장 대신 성인야구장 등 실제 수요에 맞는 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리 밑 불법 평상 등은 국가지침에 따라 철거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히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행안부 재해예방사업 선정

고창군, 700억 투입 고수 와촌천 · 아산 주진천 정비

고창군이 이상 · 극한 기후에 따른 침수 등 피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신규 재해예방사업 2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선정사업은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대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700억원(국 · 도비 49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자연재해위험지역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70억원으로 고수면 봉산리 일대 와촌천 4km와 재해위험저수지, 소하천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대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30억원을 투입해 아산면 하갑리 일대 주진천 3km정비와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내수침수 예방 능력을 강화한다.

고창군은 지난 3월 사업 신청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

이후 행안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서류 및 발표 심사를 성실히 거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미래 농업 이끌 주역 한자리에

정읍서 열린 '청년농 스마트 드론 경진대회' 열려

전북 청년농어업인들이 드론 활용 역량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정읍서 열려 미래 농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16일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2회 전북 청년농 스마트 드론 경진대회'에는 전북 각지에서 20여 개 팀이 참가해 기술을 뽐냈다.

참가자들은 드론 방제와 시비, 예찰 등 영농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고 행사장에는 드론 기종 전시와 최신 기술 · 연구 동향 소개도 함께 마련돼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말벌집 퇴치 드론과 폭염 예찰 드론 시연은 참가자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심사 결과, 대상인 도지사상은 김제시 강민성 · 스기하라 유카 팀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인 정읍시장상은 정읍시 최선호 팀, 익산시 김기표 · 김미소 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우수상인 전북지부 회장상에 다섯 팀이 이름을 올렸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기술 경연을 넘어 청년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시장 · 신규 직원 함께 '소통의 시간'

정읍시가 MZ세대 신규직원과의 네 번째 브런치 소통 · 공감 토크를 열며 세대 간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이번 행사는 2024년 임용된 신규직원 15명과 이학수 시장이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며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화에서는 개인적인 질문부터 공직자로서의 자세, 업무 적응에 관한 고민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다. 신규직원들은 공직 생활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솔직하게 전했고, 시장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건네며 격려했다.

브런치 소통 · 공감 토크는 이번 4차 행사까지 이어지며 MZ세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세대 간 이해를 넓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신규직원들이 업무나 공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언제든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